

[MOOC] 서울의 도시계획 경험과 세계 도시개발에의 함의: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2016. 1. 30.

강명구  
mkangcity@gmail.com

---

Week 1. 전지구적 급속한 도시화의 이해와 서울의 현대도시계획 태동  
Rapidly Urbanizing World and Overview on Seoul Urban Planning Experience

[Urban Planning Module 4]

Let's take a look at Seoul's transformation from 1960 to 2010.

1960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의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This is one of the articles that articulates the situation of the time.

이것은 그 당시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사 중 하나입니다.

During that time Seoul's unemployment rate was 25 percent and the per capita GNP was well under hundred dollars.

그 당시 한국의 실업율은 25%였고 1인당 GNP는 100달러 이하였습니다.

And we suffered from electricity generation shortage and we had no gas and no mineral resources.

전기도 부족하였고, 가스도 없고 광물자원도 없었죠.

We exported 20 million per year, but imported 200 million per year.

수출이 연 2천만달러였는데, 수입은 이보다 10배 많은 2억달러였습니다.

This article concluded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of urban economic miracle.

이 기사는 한국에서의 경제 기적은 가능성이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But the miracle happened.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죠.

The thick line shows that Korea was one of the lowest ranked countries

굵은 선은 한국인데,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국가였습니다.

but nowadays Korea is now one of the leading countries.

하지만 지금은 선진국 중 하나에 속합니다.

So we believe that all countries can make the same developments.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한국과 같은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Even the countries at the bottom of the graph can become a highly developed country.  
비록 현재 그래프의 아래에 있는 나라들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his is the picture of Seoul five decades ago.  
이 사진은 약 50 년 전 서울입니다.

You can see the issues of congestion, pollution, water shortage and slums just 50 years ago.  
보시다시피 교통정체, 오염, 물 부족과 빈민촌 문제가 만연하였습니다.

But nowadays Seoul is viewed as one of the vital place.  
하지만 오늘날 서울은 활기찬 도시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Seoul is regarded as a place of high tech industry, a historical place and ecological place with lots of cultural events.  
서울은 첨단 산업의 중심지이고, 역사적 공간과 친환경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The question is how Seoul transformed from one of the poorest cities to an affluent and vibrant city.  
어떻게 서울이 가장 가난한 도시에서 풍요롭고 활기찬 도시로 변모할 수 있었을까요?

These are some of the changes in the numbers.  
숫자로 서울의 변화를 느껴봅시다.

The first thing I'd say is the big jump in the life expectancy.  
첫째로, 기대 수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Life expectancy increased from 51 in 1960 to 81 in 2010.  
기대수명이 1960 년대에 51 살 에서 2010 년대에 81 살이 되었습니다.

On the average, citizens of Seoul **live 30 years longer than the previous generation.**  
평균적으로 서울 시민은 이전 세대에 비해 30 년 이상 더 살게 되었습니다.

And infant death rate also dropped dramatically from 83 to 3.  
그리고 소아 사망률은 83 에서 3 으로 줄었습니다.

In 1945, one of ten babies were dead but nowadays, hypothetically, no babies are dead when born.  
1945 년에는 10 명 중 약 1 명의 신생아가 죽었습니다만, 오늘날 영아 사망은 거의 없죠.

And the GNI per capita increased from under 100 to over 30,000.

1 인당 GNI 는 100 달러 미만에서 30,000 달러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We also observed big improvements in air and water quality.

또한 공기의 질과 수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In terms of housing, over 50% of households lived in a one-room housing.

주거 부문 있어서 50% 넘는 세대가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This meant that this one room was literally just the one room

여기에서 말하는 단칸방은 말 그대로 방이 딱 하나입니다.

with no bathroom, no kitchen and no extra rooms.

화장실도 부엌도 없이 방만 하나입니다.

The one-room living condition was quite miserable

단칸방의 삶은 열악했습니다.

but nowadays the average household lives in a 3 bedroom housing.

하지만 오늘날 평균적으로 3 개의 침실을 갖추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And the physical development also shows that we improved the urban land development from 130 to 260

우리는 도시용 토지 개발로 시가화 면적이 130 km<sup>2</sup> 에서 260 km<sup>2</sup> 로 증가 하여 두 배가

되었습니다.

And we supplied a lot of housing units

많은 주택을 제공했습니다.

and we also saw improvement in the public space.

공공공간도 개선되었습니다.

Especially, the green space [per capita](#) improved from 4 to around 6.

1 인당 녹지면적은 4 m<sup>2</sup>에서 6 m<sup>2</sup>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Compared to the population growth, the green space per capita improvement was a huge development.

인구 증가를 고려하였을 때, 1 인당 녹지 면적의 증가는 큰 개선입니다.

This picture shows the quality of rivers.

강의 질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Up to the 1980's the river quality degraded and it was a big problem.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1980년대까지 강의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큰 문제였죠.

But after the 1980's we put in a lot of effort to improve the river quality

하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수질개선에 노력한 결과

nowadays we have very safe and clean river water

오늘날 매우 안전하고 깨끗한 강이 되었습니다.

and this water resource became the base for a sustainable development.

그리고 이러한 수자원은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